

영화 기록의 기술에 관한 연구*

김진성**

1. 서론
 - 1) 연구의 배경
 - 2) 선행연구 분석
 - 3) 연구범위 및 방법
2. 이론적 배경
 - 1) 영화 기록의 개념
 - 2) 영화 기록 기술의 목적과 기술 규칙
3. 관련 메타데이터 표준 및 기술 규칙 비교
 - 1) 더블린 코어
 - 2) 국제 보존기록 기술규칙
 - 3) 영화 아카이브 목록규칙
 - 4) 분석결과
4. 영화 기록의 구조와 기술 규칙에 대한 제안
 - 1) 작품과 개별 자료의 구분
 - 2) 영화 기록의 내용, 맥락, 구조
 - 3) 영역별, 요소별 구성
5. 결론

* 이 글은 필자의 "영화 기록의 기술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08을 축약재정리한 것이다.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선임연구원

[국문초록]

영화 기록은 인간의 문화 활동에서 만들어지고 그에 관련된 정보를 장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류의 기억이며 기록이다. 다만, 영화 기록의 주된 생성목적이 공공 업무활동의 사실적인 내용을 증거하는데 있다기 보다는 민간의 문화적인 창작 내용을 재현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공분야의 시청각기록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기에 영화 기록 특유의 물리적·지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 원칙과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기술 업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목적과 규칙에 기반한 문서화된 규칙이 필요하므로 더블린 코어, ISAD(G), FIAF Rules라는 관련 국제 기술 규칙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화 아카이브의 기록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영역과 요소의 구성에 중대한 변화를 줄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 기록을 작품과 개별 자료라는 관념적인 존재와 실제적인 존재로 구분하는 것이다. 둘째, 영화 기록의 내용, 맥락, 구조를 이해하고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 영화 기록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영역과 요소를 설정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제안된 영역 및 요소는 2개 부분에서 각각 6개 및 8개 영역, 22개 및 25개 요소이다. 이 영역 및 요소(안)은 특정 영화 아카이브의 현황이나 정책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 일반형이기에 해당 영화 아카이브별로 특정한 요소나 하위 요소를 설정할 수 있다.

주제어 : 영화 아카이브, 필름 아카이브, 문화창작기록, 영화 기록 메타데이터, 기술 규칙, 더블린코어, ISAD(G), FIAF Rules

1. 서론

1) 연구의 배경

지난 10여 년간 한국에서의 기록관리학 연구 경향은 주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행정 및 경영 활동에 대한 기록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인류의 활동 중 문화 활동 역시 중요한 영역이며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기록 역시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본 연구는 이런 문화 활동에서 생성된 기록, 그 중에서도 '영화'라는 특정분야에서 생성되는 기록을 다룬다.

일반적으로 영화는 예술 작품이나 문화오락 상품으로 인식되었으나 개봉상영기간 이후에도 제기되는 학술적·문화적 이용요구, 영화 필름과 비(非)영화 필름 자료들의 제공 필요성, 매체 특유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점점 방대해지는 생산량 등을 배경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과 전담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서구에서는 20세기 초반부터 국공립 영화 아카이브와 시네마테크가 설립되기 시작했으며 한국에서도 1974년 재단법인 '한국필름보관소'가 설립된 이래 국가가 지원하는 영화자료 관리가 시작되었다.¹⁾

우리가 '영화를 본다'고 할 때의 영화는 영화필름이나 디지털데이터가 기계장치에 의해 영사막에 투영된 화면과 음성을 시청각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대상(Objects)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화 아카이브에서는 영화 필름을 주요한 관리대상으로 인식하여 왔다. 한편, 개인

1) 윤혜숙, 「영상문화시대의 필름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 석사학위논문, 2002, p.2 한국필름보관소는 1991년 한국영상자료원으로 개칭되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영화를 감상하는 것이 주된 행위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영화를 제작·배급·상영하는 민간 공급자의 활동과 이를 진흥·심의·보존하는 공공 지원자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때문에 이런 활동들 속에서 수많은 관련자들이 관계를 맺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영화 활동에 대한 업무기록들이 생성된다. 또한 이런 직접적인 활동들 외에 언론보도, 평론, 수상(受賞)과 같은 기타 관련 활동에 대한 정보 역시 생성된다. 본 연구는 이들 모두를 영화 기록이라고 전제하고 그 고유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술(記述:description)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 모색해 본다.

2) 선행연구 분석

지금까지 국내 기록관리학계에서는 음성기록물, 사진기록물, 동영상기록물에 관한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영화 기록 및 그 기술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 성과는 거의 없었다. 다만 인접 분야학문인 문헌정보학과 전산학에서 영상물 및 관련 자료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지에 대한 몇몇 선행적인 성과들이 존재한다. 직접적으로 본 연구와 관련성을 가지는 연구성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이미화는 영화자료의 기술을 위해 KORMARC을 확장해서 설계할 것을 주장하며 도서 등의 다른 자료들과 차별되는 영화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였다.²⁾ 하지만 국외 영화 아카이브 목록 규칙과 KORMARC만을 기반으로 하였기에 작품과 개별 자료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영화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엿보인다.

김소형은 영화정보의 특성상 동일한 내용이면서도 형태와 표현방식이 다른 경우가 빈번하며 동일 원저작을 바탕으로 여러 편의 영화가

2) 이미화, 「영화자료를 위한 KORMARC 형식의 확장설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 석사학위논문, 1995

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렇기에 저작, 표현형, 실현형, 개별 자료로서 영화정보를 구분하는 MP-FRBR 모형을 제안한다.³⁾ 이 개념은 관념적인 대상에서 실제적인 대상까지를 구분하는데 탁월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일부 반영하여 영화 작품과 개별 자료로서 영화 기록의 기술 수준을 구분한다.

남영준과 문정현은 국내 주요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청각기록물의 기술요소를 비교·분석한 후 통합 메타데이터 기술요소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도서, 공공기관의 영구기록물, 유물에 대한 최소 수준의 공통입력 요소와 선택입력 요소를 도출하였다.⁴⁾ 그러나 유형 구분이 매체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시청각 기록물의 특성인 시간 규모 등이 빠져있는 등 최소화 기준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

기록관리학계의 관련 연구 중 이창순은 영상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ISAD(G)를 비롯한 국외의 기록물 기술규칙의 메타데이터 요소들과 한국의 공공기록관리 법령과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관리지침에서 추출한 정보요소를 비교하였다.⁵⁾ 또한 이은실은 사진 및 동영상 기록물의 정의를 내리고, 그 가치·유형·특성을 분석한 후 ISAD(G)를 비롯한 국외의 기록물 기술규칙과 한국의 국가기록원, 한국영상자료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기술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기술요소를 제안하였다.⁶⁾ 하지만 이들의 연구대상은 영상 형태의 공공기록물이기에 주로 민간에서 제작되는 영화의 물리적·지적 특성을 드러내는 기술에는 적합하지 않다.

3) 김소형, 「영화정보를 위한 FRBR 모형 메타데이터 시스템 구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 박사학위논문, 2006

4) 남영준·문정현, 「시청각기록물의 기술요소 확장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4), 2010

5) 이창순, 「영상기록물의 메타데이터 요소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기록관리학 석사학위논문, 2006

6) 이은실, 「기록관의 사진 및 동영상 기록물 기술요소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기록관리학 석사학위논문, 2011

국외의 관련 연구 중 제프리 여는 기록이 활동의 참여자나 관찰자,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이에 의해 생성된 활동의 영속적인 재현물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의하면 증거나 정보는 기록이 가진 많은 어포던스(Affordance)⁷⁾중 일부이고, 이들은 중요한 개념이지만 오직 기록에만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반대로 기록에 이들만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⁸⁾ 이러한 견해는 본 연구에서 후술하는 영화 기록의 개념을 정리하는 데 참고가 되었다.

마르타 이는 영상 작품(Work)이 본질적으로 영상 형식의 자료이기에 화면상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버전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그러한 버전의 차이를 동일 원작에서 파생된 별개의 영상 작품, 연출 구성상의 변화, 음성대사나 자막 같은 문자적 부분의 변화, 공연상의 변화와 같은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⁹⁾ 이는 동일한 영화 작품이라는 개념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기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레이 에드먼슨은 시청각물 아카이빙의 원칙과 정책에 관련하여 일반 아카이브와 도서관, 시청각물 아카이브의 목표와 관리 방식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기본 개념, 용어, 가치, 특성, 하위 업무 등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는 시청각물 아카이브의 기술 업무 결과가 핵심적인 접근 도구이자 검색의 출발점임을 역설한다.¹⁰⁾

7) 거칠게 번역하면 '행위유발성' 정도의 의미로서 어떤 행위가 일어나게 하는 대상물의 질적인 속성을 말한다. 여기서는 기록을 관리하고 이용하게 하는 가치(value)를 확장시켜 사용하는 개념이다. 전통적인 증거, 정보 외에 이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 설명책임성, 권력의 정당화, 개인이나 사회의 정체성과 영속성, 시공간을 초월한 의사소통 등이다.

8) Geoffrey Yeo, "Concepts of Record (1): Evidence, Information, and Persistent Representations", *American Archivist*, Vol.70 (Fall/Winter), 2007

9) Martha M. Yee, "The Concept of Work for Moving Image Material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18(2), 1993

10) Ray Edmonson, "Audiovisual Archiving: Philosophy and Principles", UNESCO, 2004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3/001364/136477e.pdf>> [cited 2011.05.05]

3)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들과 그 밖의 영화 기록의 기술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인식들을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영화 기록의 개념과 기술 대상을 정립하고 그 기술 영역 및 요소안을 제안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공공분야에서 생산되는 시청각기록물보다 민간·공공분야에서 생산되는 영화 기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록관리학, 영화학, 문헌정보학, 전산학의 연구성과를 근간으로 2장에서 영화 기록의 정의 및 구성, 영화 기록 기술의 의의를 논의한 후 기술규칙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언급한다. 다음 3장에서는 관련된 기술 규칙들의 제정 배경, 대상물의 특성 및 영화 기록 기술시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산·보존기록·영화자료 관리 분야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일반적인 규칙들을 사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이들의 횡적인 비교보다는 각 요소들이 영화 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기술할 수 있는지, 영화 기록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역과 요소는 무엇이고 어떻게 변형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마지막 4장에서는 앞의 논의들을 정리하여 작품과 개별 자료라는 개념적 구분의 필요성과 영화 기록의 내용, 맥락, 구조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루며 영화 기록 기술에 있어 필요한 영역 및 요소를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1) 영화 기록의 개념

영화학이나 관련 법률에서 영화란 사진의 원리를 이용, 피사체를 연속 촬영함으로써 영사했을 때 피사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매체¹¹⁾, 또는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이나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¹²⁾으로 정의된다.

이런 영화에 관련된 직접적인 활동은 영화를 직접 만드는 제작활동, 제작된 영화를 상영관에 공급하는 배급활동, 배급된 영화를 상영하는 상영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활동의 주체는 각각 제작사, 배급사, 상영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을 지원하는 공적인 활동은 영화계 전반이나 일부 분야에 대한 진흥활동, 제작된 영화에 대한 공연 등급을 판정하는 심의활동, 납본되는 영화필름과 자료에 대한 보존활동으로 구분된다.¹³⁾¹⁴⁾

또한 영화 활동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생성되거나 그와 관련되어 생성되는 기록정보자료들은 그 생성의 목적, 활동의 원인이나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영화 제작 산출물은 제작활동에 의한 직접적인 산출물이며, 영화 업무 기록은 전체 활동과정과 방식에

11) 김광철·장병원 편, 『영화사전』, media 2.0, 2004

12)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 (개정 2010.3.31, 법률 제10219호)

13) 한국에서 해당 활동의 대표적인 조직들은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심의회 원회, 한국영상자료원이다. 이들은 법적 지위에 있어 준정부조직이라 할 수 있으며 대부분 국가예산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국정감사 대상에 속하는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다.

14) 이러한 6개 영역의 구분은 영화 기록의 생산조직 출처별 구분이라 할 수 있다.

대한 기록정보이고, 영화 관련 정보는 영화 제작 산출물과 영화 업무 기록에 관련된 정보이다. 이러한 3개 부분의 구분은 생산 특성에 따른 구분이라 할 수 있는데 영화 제작 산출물과 영화제작 업무 기록의 차이는 전자가 업무의 결과로 생산되어 유통되려는 의도가 강한데 비해 후자는 업무의 과정에서 생성되어 업무 자체를 진행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영화 활동에서 생성되는 기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그 생성목적과 가치 및 특성이 유형별로 다르다.

영화 제작 산출물은 영화가 직접적으로 존재하는 기반인 필름이나 비디오 자료, 영화의 내용이 텍스트화 되어 있는 대본이나 시나리오, 영화에 대한 소개 및 홍보를 위한 포스터, 전단지, 스틸사진 등의 홍보물, 영화 내에서 사용되는 배경 음악을 모아둔 OST 음반 등이다. 오락적, 예술적, 기록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생성되는 영화 제작 산출물은 작품의 내용이나 표현 양식에 대한 간접적이며 정보적인 가치가 뛰어나지만 사회의 실제 상황에 대한 직접적이며 증거적인 가치는 떨어진다. 영화의 초창기 시절에는 영화와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서 열차가 도착하는 원근 구도의 장면에서 관객들이 혼란에 빠진 사례나 악역 배우에 대한 사적인 폭력행위가 존재했다. 오늘날에도 창의적인 표현을 위해 과장된 연출과 연기가 실제 사실로 혼동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¹⁵⁾ 또한 영화 제작 산출물은 소수의 생성자에 의해 만들어지기보다 다수의 관계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제작되어 배우 및 스태프의 업무(역할) 분담이 정형화되어 있고¹⁶⁾ 다양한 매체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물을 관리할 때 각 매체의 물리적 특성을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15) 이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문제이다. 다큐멘터리 영화의 '연출성'에 대해서는 유현석, 「다큐멘터리에서 모큐멘터리까지」,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봄철학술대회 자료집, 2009을 참조

16) 안주엽·황준우, 『영화산업 전문인력 분류체계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07

영화 업무 기록은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 진흥, 심의, 보존과 같은 관련 업무활동에 대한 조직 내외의 의사표현·교환을 위한 각종 기획서, 계약서, 설정집, 일정표, 예·결산서 등이다.¹⁷⁾ 이들은 결국 영화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보조하고 이 과정을 근거로 남겨 참고하거나 증빙하기 위해 생성된다. 제작기획서나 배우섭외안은 영화 제작의 의도와 방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영화진흥사업의 지원보고서는 특정 개별 영화나 영화 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원내역을 알려줄 수 있다. 특히 영화를 직접 제작, 배급, 상영하는 이들에게는 교육적, 연구적, 산업적 가치가 높기에 사회 공동의 유산이라기보다 업무활용을 위한 조직의 자산으로 취급되는 면이 있다. 제작비나 배급계약내용, 극장관객수와 수익 등과 같은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기록정보에 대해 민간 업체는 비공개 조건으로라도 영화 아카이브에 넘겨주기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장면연출표와 같은 업무 기록 역시 감독 및 중요 스태프의 입장에서 산업적, 예술적 노하우가 집약된 것이기에 이와 비슷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화 아카이브가 이들 업무 기록의 원형을 그대로 수집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 내용 중 일부를 추출하여 입수하거나, 세밀한 비공개 항목과 조건을 설정하여 수집하는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¹⁸⁾

영화 관련 정보는 영화 작품에 대한 설명, 감상, 논증을 중심으로 하는 보도기사나 평론, 영화 작품의 표현 양식, 기술적(技術的) 사항에 대한 연구논문 및 보고서, 특정 영화 작품들의 상영 및 수상이 진행되는 영화제의 정보가 해당된다. 이들은 영화 작품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설명, 해석, 의미부여 등을 위해 만들어 지며 개별 영화 작품이나

17)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제작과정 소개

<http://www.kofic.or.kr/b_movdata/b_04technol-01.jsp> [cited: 2011.08.28]

18) 이에 앞서 영화 아카이브에서 제작사, 배급사, 상영관들의 현황 및 변천 정보를 입수, 관리하고 개별적으로 생산, 관리할 수 있는 기록관리 표준과 실무 가이드를 연구·보급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정 주제에 관련하여 사회적 기억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영화 잡지나 개인 블로그에 실린 기사나 평론은 영화 작품이 가지는 의미, 영화사적 가치, 접근 방식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영화 작품에 대한 해석과 통로를 풍부하게 한다. 또한 영화 인명정보는 영화 활동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로서 개별 영화 작품 활동에 참여한 개인의 활동상을 조망하는데 유용하며, 영화제의 수상 정보는 당대의 영화 작품에 대한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를 전달할 수 있다. 영화 관련 정보는 특정 영화 작품이나 사안을 중심으로 관련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 관계성을 명확히 해야 후대에서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유용하다.

정리하자면 영화 기록이란 '영화 활동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생성되거나 그에 관련되어 생성된 것으로 그 생성목적과 과정의 내용, 구조, 맥락을 알려줄 수 있는 지속적 가치를 지닌 기록정보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화 기록은 영화라는 영상매체의 성격상 문자 형식만이 아닌 시청각 형식의 형태가 많으며, 종합예술의 형식을 지니고 있어서 다양한 물리적 매체를 기반으로 한다. 중요한 원본(진본) 개념이 모호한 기록들이 많으며 생성 주체의 다양성 및 환경적 차이 때문에 원본(진본) 기록 자체를 입수·관리하기 어렵다. 또한 사실적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여 이를 증거하려는 부분과 창작된 내용을 표현하여 감성을 재현하려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서 이를 구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2) 영화 기록 기술의 목적과 기술 규칙

영화 기록은 미래 세대의 활용을 위해 보존되어야 하는 자료들이다. 이들의 기원이나 출처는 그것이 가진 중요성을 이해하는 핵심 요소이며, 그 역사적 맥락은 작품들 간의, 그리고 작품 내의 개별 자료들 사

이의 관계를 보여준다.¹⁹⁾ 이를 위해 영화 아카이브는 이러한 영화 기록을 입수하여 보존하면서 그 영화 기록이 가진 정보를 기술하여야 한다.

기록에 대한 기술(記述:description)이란 기록의 생성방식과 그것이 만들어진 맥락을 설명하고, 기록을 식별·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보를 획득, 조직, 대조,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기록 단위에 대한 적합한 설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술이란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개개의 기록이나 구성 집단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함으로써 다른 대상 기록과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한편, 기술은 대상물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기록물을 통제하는 시작점이기도 하다. 기술자는 기록이 포함하고 있거나 외부에 존재하는 기록에 대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면서 기록의 내용, 구조, 맥락을 이해하고 후대의 관리자나 이용자들에게 이를 전달한다. 이를 위해서 기술내용을 영역별, 요소별로 구분하고, 기술 대상물의 특성을 반영하며, 중요 정보를 표현할 수 있도록 분석하고 설정해야 한다.

기록에 대한 기술 요소와 메타데이터 요소는 모두 생성된 기록의 내용과 구조, 맥락 및 관리 이력을 기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대규모 정보자원에서 원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서는 메타데이터 요소가 필수적이며 이를 이용하면 이용자는 보다 정확하게 정보자원을 탐색하고 접근할 수 있게 된다.²⁰⁾ 오늘날 양자는 대상에 대한 구조화된 정보를 공통된 기준에서 기입, 활용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다.

19) AMIM Revision Committee of LC Motion Picture, Broadcasting, and Recorded Sound Staff, Archival Moving Image Materials: A Cataloging Manual (2nd), Library of Congress, 2000, Introduction p.1

20) 안현수, 「메타데이터의 표준으로 자리잡은 더블린 코어」, 『IT Standard weekly』 25, 2001

그러나 이것이 기록관리 분야에서 기술과 메타데이터의 개념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메타데이터가 기록에 대한 데이터 값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비해 기술은 기록을 찾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한다는 의미를 가진다.²¹⁾ 또한 기술 업무는 기술 요소를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기술 대상물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특정 아카이브에서 진행할 기술 업무의 목표, 기술 대상물 자체의 범위 및 유형과 특성에 대한 분석, 어떤 기술 요소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기입할 것인가가 표준적인 규칙으로 명문화되고 주기적으로 증보되어야 실무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기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기술 규칙이란 어떤 기술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일관적이고 통일성 있게 작성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영화기록 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록은 기술 규칙을 필요로 한다. 이에 기술 규칙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일반화시켜 정리한 후, 본 연구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조직의 조직적 유형과 목적을 파악하고 분명히 하는 것이다. 조직적 유형이란 그 조직이 일반적인 아카이브인지 특정 분야의 아카이브인지, 조직의 법적 위치가 공공조직인지 민간조직인지 또는 공사합작조직인지, 조직의 목적이 이익이나 서비스를 공적으로 공유하는 것인지 사적으로 당사자들에게만 제공하는지 등이 중요하다. 또한 기록을 일시적인 목적에 국한하여 입수, 활용하는지 또는 장기적인 사명과 비전을 유지하며 관리할 계획이 있는지 역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영화 아카이브는 영화 기록 중 지속적인 가치를 가

21) 다른 측면에서 메타데이터 개념의 기원과 발전이 컴퓨터로 대표되는 전산도구를 사용한 기계-기계 또는 인간-기계-인간 간의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염두하여야 한다. 단, 기술과 메타데이터의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고 해도 실제 운영에서 상호보완적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메타데이터에 대한 기원과 의미론적 확장에 대해서는 남태우·이승민, 「메타데이터의 의미론적 확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4), 2010을 참조

진 것들을 선별적으로 입수·보존하여 그 문화적인 가치를 증진시키며 후대에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관리 대상물의 범주를 확인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것의 현용적/비현용적 가치는 무엇이고 초점이 어떻게 변하는지, 조직화의 여부 또는 용이성, 기록 외부에 존재하는 구조와 맥락을 획득하는 방식은 무엇인지, 대상물의 물리적·지적 특성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만 한다. 영화 기록은 주로 문화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며 비조직화된 형태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필름, 비디오 자료, 영화 잡지와 같이 복제와 발행이 전제가 되는 기록이나 오랜 전에 폐업한 제작사에서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집한 문서기록 처럼 원본(진본) 기록을 확인,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덜 중요한 경우가 많다. 더불어 다양한 물리적 매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 자료의 물리적 특성이 기술되어야 하고 영화기록의 집합성을 지적으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적인 모기관 부설 기록관의 경우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셋째, 관리하고 이용할 때 필요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기술 규칙에 적용하는 것이다. 대상물의 입수방식이 법률이나 협정 또는 암묵적인 관례에 기반하는지 여부, 분류체계 및 보존을 위해 필요한 특수한 정보들을 기술 요소에 명확히 반영할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등은 관리 시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보관 및 이용방식이 개가식인지 폐가식인지 여부, 대상물을 직접 이용하려는 수요의 정도, 복제이용 및 가공이용에 대한 선호도 등은 이용과 관련된 요구사항이다. 이는 실제 해당 영화 아카이브에서 이뤄지는 관리 업무나 이용의 범위 및 방식에 대한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기술 규칙 제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생략한다.

넷째, 국내외 영화 아카이브 및 관련 조직과의 정보교환을 위한 표준화를 지향하기 위하여 이들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 규칙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런 상호 공유와 호환성은 문화유산 관리 조직 간의 실제적인 협력을 실현하는데 중요하다.²²⁾ 이 경우 표준화의 정도를 설정해야 하는데 표준화를 극단적으로 지향하면 특정 관리조직이 보유한 대상물의 특성을 기술할 수 없고, 반대로 지양하면 개별 관리조직별로 파편화된 정보만을 기술할 수 있다. 특히 내부용 목록 수준의 기술 규칙은 외부 이용자에 의한 식별 및 접근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기록과 기록에 대한 정보의 공동 활용 및 데이터 교환에 장애가 된다. 때문에 다음 장에서는 영화 기록을 기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제 기술 규칙들을 살펴보고 이들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분석한다.

3. 관련 메타데이터 표준 및 기술 규칙 비교

1) 더블린 코어

더블린 코어(Dublin Core)는 1995년 OCLC와 LCSA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한 워크샵에서 합의한 메타데이터의 표준안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메타데이터 서술방식이다. 웹문서, 일반 기록물, 도서자료, 박물관자료 등 다양한 정보 자원(resource)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고안된 더블린 코어는 기술에 사용되는 15개 주요소를 제시하고 한정어의 사용을 통해 하위 요소를 설정할 수 있다. 더블린 코어 자체는 기술 규칙이 아니지만 워낙 기본적이고 광

22) Alexandra Yarrow, Barbara Clubb and Jennifer-Lynn, "Public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Trends in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IFLA Professional Reports, No. 108 <<http://www.ifla.org/VII/s8/pub/Profrep108.pdf>> [cited: 2011.07.29]

조윤희, 「정보자원 공유를 위한 문화유산기관 협력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2), 2008

범위한 정보교환 메타데이터 표준이기에 기술 대상 자체의 특성, 주된 활용목적과 방식에 대한 보완이 강조되지 않는다면 기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더블린 코어 자체의 목표와 장점 및 약점을 살펴본 후 이를 영화 기록의 기술에 적용할 경우의 한계지점을 논하려 한다.

더블린 코어의 목표는 첫째, 데이터의 형식과 구조를 단순화하여 원문의 저자나 발행자가 메타데이터를 직접 작성하고, 둘째, 네트워크 출판을 위한 저작도구의 개발자가 이 정보에 대한 템플릿을 직접 해당 소프트웨어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작성된 데이터를 기초로 특정 분야에서 요구되는 상세한 수준으로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더블린 코어는 다른 메타데이터 표준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동일한 정보자원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의미 정보를 나타내는 메타데이터 표준과 공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단순함을 목표로 하는 더블린 코어의 특성은 그 자체가 장단점을 가진다. 즉, 더블린 코어의 단순성은 메타데이터 제작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으며 상호운용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에 복잡한 메타데이터 체계에서 지원되는 의미와 기능 측면에서의 풍부함을 제공하지는 못한다.²³⁾

2) 국제 보존기록 기술규칙

ISAD(G) 2nd는 1999년 ICA의 기술표준위원회에 의해 제정된 기술규칙 표준으로서 1993년에 만들어진 1판을 수정·보완한 2판이다. 이 표준은 보존기록(Archives)을 기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기록의 계층적 구조를 반영하는 다계층 기술 원칙²⁴⁾을 강조한다. 이러한 다계층

23) 안현수, 「메타데이터의 표준으로 자리잡은 더블린 코어」, 『IT Standard weekly』 25, 2001

기술 원칙에 대한 강조는 보존기록이 계층적인 활동에서 생성된다는 지적인 특성을 기술하기 위한 것이다.

ISAD(G) 2nd는 기록의 내용정보와 맥락정보를 설명하고 조직하여 해당 기록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보존기록 기술의 목적인다고 선언한다.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영역별, 요소별로 구분하여 기술하기 위해 7개 영역, 26개 요소를 조직적으로 구분해서 설명한다. 한편 ISAD(G) 2nd는 다른 기술 규칙들에 비해서 구조정보를 독립적인 영역으로 설정하지 않는데 이는 일반형 기술 규칙이기 때문에 매체에 대한 상세기술이 덜 부각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ISAD(G) 2nd에서 다른 규칙들과 구분되는 특징은 대상물의 계층성을 반영하는 요소들과 이력정보 요소가 상세하다는 것이다.

기술계층은 해당 기술 단위의 계층을 기입하는 요소이다. 영화 기록의 경우 시리즈물로 제작되는 영화 작품이 존재할 수 있기에 이를 표현하는 요소가 필요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영화 작품의 시리즈는 일반적인 기록 분류계층상의 시리즈와는 구분된다. 전자는 영화 작품의 줄거리나 설정, 배역상 연결부분이 존재하기에 동일한 연작으로 인정되지만, 후자는 업무활동의 연속성에 기반한 기록 내용의 연관성 때문에 동일한 계열로 확정된다. 때문에 영화 작품의 시리즈 정보는 기술계층 정보와 동일하게 대응하는 요소는 아니다. 다만, 이러한 계층성은 해당 기록이 생성된 업무활동 자체가 계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정 규모 이상인 활동 주체의 행정적, 경영적 업무활동에서 생성된 기록정보의 구성을 표현하기 위해

24) 첫째, 전체 기록물 덩어리(Fonds)와 그 계층적 구조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 포괄적인 상위계층에서 구체적인 하위계층으로 기술한다. 둘째, 기술 단위의 정확한 맥락정보를 설명하기 위해 각 기술 단위마다 적절한 계층적 정보를 기술한다. 셋째, 계층 안에서의 기술 단위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술들을 연결한다. 넷째, 계층적으로 연결된 기술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상위계층에서 설명한 내용을 보다 하위계층에서 반복하지 않는다.

서는 이 요소가 필요하다.

행정연혁/개인이력은 맥락 내에서의 해당 자료의 논리적 위치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 단위의 생성자에 대한 행정연혁이나 개인이력을 기입하는 요소이다. 영화 작품은 대부분 집단적인 창작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 사이의 연계성을 단일한 요소로 표현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때문에 영화 활동의 주체들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구성하고 이를 연계해 주는 편이 적절하다.

기록이력은 해당 기록의 진본성, 무결성의 증명이나 해석에 있어 중요한 내력(來歷)에 관한 정보를 기입하는 요소이다. 이를 위해 기술 단위의 소유권, 보관책임 및 보관활동에 관한 이력을 기술하며 현재의 상태에 영향을 끼친 정리연혁, 최신 검색도구의 제작, 해당 기술 단위에 대한 이용사항 등을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이력정보는 그 범위가 넓고 시간이 흐를수록 내용이 변하기 때문에 별도의 이력정보 DB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다.

평가, 폐기, 처리일정은 기술 단위에 대해 계획되었거나 이미 수행된 각 일정을 설명하는 요소이다. 영화 기록의 경우에도 이러한 계획과 과정에 대한 정보가 기술되어야 관리의 편의성 및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다.

3) 영화 아카이브 목록규칙

FIAF Cataloguing Rules For Film Archives(이하 FIAF Rules)는 1991년에 국제 영화아카이브 연맹(FIAF)의 카탈로깅 위원회에 의해 제정되었다. ISBD(NBM)을 기본 토대로 하여 영상 자료(moving image material)의 특성과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규칙은 영화 아카이브에서 보존되는 자료를 기술하는 활동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하며, 그렇게 기술된 정보의 교환을 지향한다. FIAF Rules에서 상정하고 있는 자

료의 유형은 영화, 텔레비전 방송, 음성자료 등이지만 실제 기술 영역 및 요소의 설정과 내용 면에서 본다면 영화와 드라마 작품 및 연작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FIAF Rules는 7개 영역 및 47개 요소로 구성되는데 영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버전 영역, 제작 및 배급 영역, 저작권 영역, 물리적 설명 영역이 상세하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드라마 시리즈의 시리즈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시리즈 영역이 별도로 설정된 것이 특징이다.

판·버전 영역은 대상물의 다양한 버전들의 변경사항을 설명한다. 영화 아카이브에 보존되는 자료들은 다양한 물리적 형태와 특성을 가지지만 특정 영화 작품이라는 개념적 존재를 중심으로 묶이게 된다. 제작판, 개봉판, 무삭제판,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사본, 마스터 및 상영용 사본 같이 다양한 버전들은 같은 출처를 가지는 조각들인 것이다. 많은 경우에는 한 개 영화 작품이 수십 개의 버전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들 모두가 간략한 방식으로 정확하고 주의 깊게 설명되어야 한다.

제작 및 배급 영역은 제작과 배급이 이루어진 장소와 날짜, 담당조직명과 역할들을 설명한다. 이 중 담당조직들은 대부분 영화를 제작하고 배급하는 영리적인 목적 하에 설립된 회사들이지만 때로는 국가기구나 비영리적인 조직에서 특정한 활동 목적에 부합할 경우 이를 실행하기도 한다. 이런 다양한 조직들의 이력정보 및 역할 설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DB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그것을 링크하는 편이 편리하고 합리적일 것이다.

저작권 영역은 저작권의 상태, 소유자, 기간, 등록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설명한다. 일반적인 저작권의 소유자는 직접 저작 활동을 한 개인이나 집단이지만 영화의 경우 실제 대부분의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 활동 비용, 즉 제작비를 부담한 투자사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국정홍보나 공익광고 같이 제작 목적이 공공적이어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저작권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채 수집되

는 경우, 저작권 원소유자가 다른 이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매매 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물리적 설명 영역은 개별 자료의 물리적 특징을 설명한다. 특정한 개별 자료 매체의 형식(예: 보존용/열람용, 원자료/복제자료, 네거티브 필름/포지티브 필름/상영용 프린트 등)이나 재생 또는 영사방식(예: 필름/VHS/아나모픽/블루레이 등), 규모, 완전성, 길이, 규격(예: 16mm/35mm/70mm 등), 물질적인 베이스 종류(예: 니트레이트/아세테이트/폴리에스터 등), 색채 및 소리의 특성 등을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도표 1> 기술영역 및 요소 일람

| 더블린 코어 | ISAD(G) 2nd | | FIAF Rules | |
|--------|-------------|------------------|---------------|-----------|
| 기술요소 | 기술영역 | 기술요소 | 기술영역 | 기술요소 |
| ①제목 | 1. 식별 | ①참조코드 | 1. 제목 및 제작 책임 | ①원제목 |
| ②주제 | | ②제목 | | ②일반자료유형 |
| ③설명 | | ③생성일자 | | ③대체제목 |
| ④정보원 | | ④기술계층 | | ④기타 제목정보 |
| ⑤언어 | | ⑤기술단위의 규모와 매체 | | ⑤제작책임 |
| ⑥관계 | 2. 맥락 | ①생성자명 | 2. 판, 버전 | ①원판버전 사항 |
| ⑦범위 | | ②행정연혁/개인이력 | | ②대체판 사항 |
| ⑧생성자 | | ③기록이력 | | ③원판 제작책임 |
| ⑨발행처 | | ④수집/이관의 직접적 출처 | | ④추가판 사항 |
| ⑩기여자 | 3. 내용과 구조 | ①범위와 내용 | | 3. 제작, 배급 |
| ⑪권리 | | ②평가, 폐기, 처리일정 정보 | ①제작장소 | |
| ⑫일자 | | ③추가 | ②제작시명 | |
| ⑬유형 | 4. 열람과 이용조건 | ④정리체계 | ③제작역할 | |
| ⑭양식 | | ①열람조건 | ④제작일자 | |
| ⑮식별자 | | ②복제조건 | ⑤배급장소 | |
| | | ③언어와 문자 | ⑥배급시명 | |
| | | ④물리적 특성과 기술 요구사항 | ⑦배급역할 | |
| | ⑤검색도구 | ⑧배급일자 | | |
| | 5. 관련자료 | ①원본의 존재와 위치 | ⑨관련 제작, 배급장소 | |

| | | | | |
|--|---------|-------------|----------|---------------|
| | | ②사본의 존재와 위치 | | ⑩관련 제작, 배급시명 |
| | | ③관련 기술 단위 | | ⑪관련 제작, 배급역할 |
| | | ④출판주기 | | ⑫관련 제작, 배급일자 |
| | 6.주기 | ①주기 | 4.저작권 | ①국가 |
| | 7.기술 통제 | ①아키비스트 주기 | | ②등록사항 |
| | | ②규칙 및 협약 | | ③저작권 소유자 |
| | | ③기술 일자 | | ④등록일자 |
| | | | | ⑤비보호자료 |
| | | | | ⑥저작권 정보미상 |
| | | | | ⑦후속 소유권 |
| | | | 5.물리적 설명 | ①특수자료 유형 |
| | | | | ②규모 |
| | | | | ③규격 |
| | | | | ④기타 물리적 항목 |
| | | | | ⑤인벤토리나 위치번호 |
| | | | 6.연작 | ①연작 원제목 |
| | | | | ②연작 대체제목 |
| | | | | ③연작 기타 제목정보 |
| | | | | ④연작 제작책임 |
| | | | | ⑤연작 국제표준번호 |
| | | | | ⑥연작 내 번호 |
| | | | | ⑦하위연작 제목 열거 |
| | | | | ⑧하위연작 대체제목 |
| | | | | ⑨하위연작 기타 제목정보 |
| | | | | ⑩하위연작 제작책임 |
| | | | | ⑪하위연작 국제표준번호 |
| | | | | ⑫하위연작 내 번호 |
| | | | 7.주기 | |

4) 분석결과

이러한 기술 규칙들 간의 영역 및 요소 구분의 차이는 기술 대상물에 관한 주요 정보를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가의 차이이다. 영화 기록을 기술하기 위해 앞에서 소개한 국제 기술 규칙들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 나타날 강점과 약점,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더블린 코어는 원래 정보자원, 특히 웹 자원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분석 및 분류하여 이를 교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기에 가장 폭넓은 메타데이터 교환성을 가지며, 단순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해와 활용이 용이하다. 그러나 자원에 대한 핵심 요소만을 기술한다는 장점이 한계로 작용하기도 한다. 상호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간결성'을 강조함으로써, 복잡하고 구조적인 정보의 경우에는 더블린 코어 형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비록 한정어의 사용을 통하여 기술 요소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지만, 더블린 코어는 탐색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원 자체와의 직접적인 연결을 전제로 하며, 자원을 식별하기 위한 충분한 요소를 포함하지는 않는다.²⁵⁾

즉, 영화 기록을 기술할 시 더블린 코어만을 사용하게 된다면 기술 대상물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포괄적인 정보만이 전달됨으로써 고유하고 가치 높은 정보들이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영화 작품에는 다수의 생성자가 존재하는데 생성자와 기여자라는 2가지 요소만으로는 이를 표현할 수 없다. 이를 한정어 및 하위 요소를 설정하여 표현할 수는 있지만 너무 복잡하고 오히려 더블린 코어의 취지에 벗어난다고 볼 수 있다. 그보다는 그 생성에 있어 역할분할이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영역이나 요소를 설정하는 편이 낫다.

25) 정재윤·김태수, 「인터넷뉴스의 메타데이터 구축에 관한 연구」, 『지식처리 연구』 7(1/2), 2006, p.127을 참조

더블린 코어를 ISAD(G) 2nd나 FIAF Rules 등과 같은 기술 규칙과 비교해 보면 기술 영역의 구분이 없으며 기술 요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ISAD(G) 2nd나 FIAF Rules에 의해 기술된 요소의 내용을 더블린 코어로 변환하게 될 경우 일부 누락·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원래의 제정 목적을 살려서 영화 기록에 대한 기술 내용 중 일부를 더블린 코어 형식으로 추출하여 이를 국내외 영화 아카이브나 유관조직과의 정보교환용 기준으로 삼는 것은 가능하다고 여겨진다.²⁶⁾ 물론 이런 경우에도 영화 기록 기술용 더블린 코어 형식은 기존의 기술 규칙을 대체하지는 못하고 유용한 자원 접근의 도구로서의 역할에 한정될 것이다.

ISAD(G) 2nd는 사례 기술 규칙들 중 영역 및 요소별 구분과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 기입방식이 가장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 방식은 기술 업무의 목적과 방식을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정보관리 대상물에 대한 기술 규칙에도 권고되어야 한다. 다만 ISAD(G) 2nd는 요소에 기입되는 구체적인 데이터 값에 대한 방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기에 이를 준용하여 영화 기록 기술 규칙을 제정할 시에는 데이터 값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지, 별도의 규정에서 다를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ISAD(G) 2nd의 생성자명, 행정연혁/개인이력 요소 설정만으로는 가변적인 조직변화나 다양한 출처에서의 입수에 대응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생성자 정보를 입수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는 영화 기록의 경우에도 필요한 사

26) "메타데이터 간의 상호운영성 확보를 목적으로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식은 더블린 코어를 기반으로 한 매핑이다. 분야별 이용자의 고급 정보서비스를 위해 상세 개발된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기반으로 하되, 더블린 코어 요소에 국한하여 매체간 혹은 분야간의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응용의 한 양태..." 오삼균, 「디지털도서관에서의 메타데이터의 역할」, 『한국정보과학회지』 20(8), 2002, p.55

항이다. 장기적으로 영화 아카이브의 입장에서 본다면 영화 기록의 대다수 생성자인 개인이나 조직들은 동일한 역할과 위상을 가지지 못한다. 또한 행정, 경영활동에서 생성되는 기록을 잠재적 대상으로 하고 있는 ISAD(G) 2nd의 물리적 특성 영역 내의 요소만으로는 다양한 매체로 구성되는 영화 기록의 개별 자료들의 성격을 반영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ISAD(G) 2nd의 기본적인 구성방식은 반영하되 구체적인 영역 및 요소는 영화 기록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FIAF Rules는 영화 아카이브 실무분야의 경험을 반영하여 작품 내의 다양한 버전 정보나 해당 자료의 물리적 특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다만 FIAF Rules 역시 일반형의 기술 규칙이기에 다양한 매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별 기술요소를 따로 설정하지는 않았으므로 해당 매체별로 별도의 하위 요소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규칙은 기본적으로 ISBD(NBM)을 토대로 하였는데, 이는 ISBD(G)에서 파생된 것이다. 때문에 ISBD(G)와 FIAF Rules의 영역 및 요소의 구성은 매우 유사하다. 예를 들어 양자의 첫 번째 영역은 'Title and statement of responsibility'로 각각 '표제 및 저자/제목 및 제작책임'로 번역·적용된다. 또한 ISBD(G)의 네 번째 영역과 FIAF Rules의 세 번째 영역은 'Publication, distribution'과 'Production, distribution'으로 각각 '발행, 배포', '제작, 배급'으로 번역·적용된다.

하지만 실제의 도서와 영화 작품은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방식의 차이가 있다. 도서는 그 저자가 사실상 해당 도서의 생성자이며 책임자이고 출판사는 이를 보조하는데 그친다. 반면, 영화 작품의 생성에서는 제작자, 감독의 역할만큼 출연배우진과 스텝진의 역할이 크기에 이들을 단순한 기여자로 보기 어렵다. FIAF Rules는 이를 분리하여 제작자와 감독의 이름과 역할설명은 '제목 및 제작책임' 영역에서, 제작사의 경우는 '제작 및 배급' 영역에서, 출연배우진과 스텝진의 경우

는 '주기' 영역에서 기입하게 된다. 이는 ISBD(G)의 영역 및 요소 구분
에 함몰되어 영화 제작활동 정보가 분산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해
당 내용들을 통합하여 단일한 영역 하에 설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FIAF Rules에서는 해당 영화 작품의 구조와 맥락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주기 영역에서 설명하므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체계
적으로 조직화해서 전달하기 어렵다. 영화 작품의 장르적 특성, 배경
음악 정보와 같은 구조에 대한 정보, 영화 작품의 생성자별 역할 및
심의결과와 같은 맥락에 대한 정보들은 구분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4. 영화 기록의 구조와 기술규칙에 대한 제안

1) 작품과 개별 자료의 구분

작품(work)이란 해당 영화라고 지칭되는 관념적인 대상이며, 개별
자료(item)들은 매체나 유형에 관계없이 영화 아카이브가 입수하여 관
리하는 실물이다. 즉, 영화 아카이브의 보존서고, 수장고, 보존서버에
는 개별 자료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며 작품은 이들 개별 자료가
집합적으로 묶일 수 있는 정보 구성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영
화를 본다'고 할 때의 영화는 영화 필름의 이미지가 영사막에 투영된
화면과 재생되는 음성을 시청각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대상이며 해당
영화 필름과는 물리적으로나 지적으로 구분된다. 때문에 영화 작품에
대한 기술은 그 작품의 내용에 관련된 것이며 필름을 포함하는 개별
자료에 대한 기술은 그 실물 자체에 관련된 것이다.

기록관리학 분야의 기술에 있어서 전통적인 원칙들로 거론되는 출
처주의, 원질서 원칙, 집합적·계층적 기술은 다양한 출처와 복잡한

구성 상태를 가지고 있는 기록군에 조직적인 기준과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보다 다종다양한 출처에서 각자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생성되는 영화 기록의 경우에는 이를 좁게 해석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탄력적인 변형이 필요하다. 영화기록의 기술의 경우에는 수직적 계층성뿐만 아니라 수평적 관련성을 충분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영화 작품에 관련된 개별 자료들은 필름, 제작기획서, 포스터, 제작발표회 사진, 평론, OST 등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개별 자료들의 집합은 해당 영화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대부분 출처의 특성상 일관되고 계층적인 업무에서 생성된다고 보기 어렵기에 수직적인 계층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²⁷⁾

그러므로 일반적인 행정·경영 분야의 기록은 집합의 기준을 기록이 발생하는 조직, 업무, 기능 등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중심으로 삼지만 영화 아카이브에 입수되는 영화 기록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 작품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단위를 형성해야 한다.²⁸⁾ 영화 아카이브의 이용자들이 1차적으로 원하는 것은 해당 영화 작품의 내용과 그에 관련된 각종 개별 자료들 찾아보기 위함이다. 개별 자료들이 영화 작품별로 구성된다면 이용자는 특정한 생성자(감독, 분야감독, 주연배우 등)나 장르, 질의응답을 통해 원하는 영화 작품에 접근하고 그 안에서 관심 있는 개별 자료를 선택하기가 용이하다. 만일 일률적으로 생성자나 기능을 중심으로만 조직화를 시도한다면 개별 자료는 오히려 출처와 원질

27) 다만 장차 영화 아카이브가 특정 조직, 예를 들어 제작사의 제작 활동 기록들을 총체적으로 입수하게 된다면 그 활동과 기록군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기술 계층의 설정이 가능하고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일개 제작사에서 기관 부설 보존기록관(in-house archive)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제작사의 조직이나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편이 낫다.

28) 영화 작품들의 상위 분류의 경우 '장르'가 유용하나 단일한 기준의 장르 구분 방식이 부재하다는 점과 복합 장르의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황에서 큰 이점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영화 기록의 분류와 연관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서 맥락을 잃어버릴 것이다. 때문에 영화 기록의 집합적 기술을 위해서는 개별 자료들을 묶을 수 있는 '작품'이라는 개념을 설정해야 하는 것이다.

2) 영화 기록의 내용, 구조, 맥락

일반적으로 기록은 내용, 구조, 맥락을 가지는데 이를 영화 기록의 경우에 대입시키면 다음과 같다. 내용은 해당 영화에 포함되어 있는 생성자의 의도와 구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으로 영상화면, 음성대사 등으로 구성되며 줄거리나 시놉시스, 편집영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영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필름이나 비디오 자료를 상영·재생하여 관람하면 되지만 그것만으로 그 영화를 총체적으로 파악했다고 하기는 곤란하다. 그 영화의 내외적인 구조나 맥락에 관한 정보를 참고하지 않는다면 내용이 가리키는 의미나 당대 사회상의 반영도를 파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과 가부장적 형제애라는 배경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태극기 휘날리며'를 감상한다면 생성자의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구조는 내적 구조와 외적 구조로 구분되는데 내적 구조란 언어, 문자, 카메라의 구도와 움직임, 배경음악 및 효과음, 미장센 같은 영화의 내적인 내용이 구성되는 연출방식이나 서술방식이라 할 수 있다. 외적 구조는 영화 자체의 구성방식인 작품형식이(극/예술/기록)나 장르(멜로/액션/코미디), 기계장치(카메라/편집기) 정보 등 영화의 외적인 사항들이 규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영화 기록 관리자들과 심화 이용자(학생, 연구자)들에게 높은 가치를 지닐 것으로 예상되며 여러 개별 자료들 내에 분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가능한 납본 시에 관련 사항의 작성을 요청하는 편이 좋다.

맥락은 영화의 내용과 구조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배경정보로서 우

선 생성연도, 생성자별 역할 등이 해당된다. 기록은 기록 생성자 이외의 타인들에 의해서 먼 미래에도 사용될 수 있지만 이런 후대의 이용자들은 그 기록의 생성을 둘러싼 정황, 사건들에 대한 지식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²⁹⁾ 때문에 영화 아카이브는 영화 기록들을 보존하는 것만큼 이런 맥락정보들을 중요하게 보존해야 한다. 최신 영화의 경우 신문, 방송, 잡지에서 관련된 맥락정보들을 조금씩이라도 살펴볼 수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영화 기록의 내용, 맥락, 구조는 어느 작품에 관련된 개별 자료의 내부와 그 자료들 간의 관계에 존재하기에 영화 아카이브는 특정 개별 자료들의 입수만큼 그 관련성을 드러낼 수 있는 심층기술에 힘써야 한다. 개별 영화 기록과 그 집합의 가치를 연구하고 널리 알리는 것이 영화 아카이브가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기본 업무라 할 수 있다.

3) 영역별, 요소별 구성

3장에서 분석된 국제 기술 규칙들의 영역 및 요소들 중 본 연구에서 상정한 영화 기록의 기술에 적합한 영역과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작품과 개별 자료 내외의 중요 정보들은 기준에 따라 수십 가지 항목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특정한 영역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우선 그 내용, 구조, 맥락정보와 이용에 관련된 저작권이나 조건들에 대한 정보가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식별정보와 관련 정보, 물리적 특성들 간의 구분도 필요하다. <도표 2>는 작품 부분의, <도표 3>는 개별 자료 부분의 기술 영역 및 요소와 추가설정 가능한

29) Elizabeth Shepherd & Geoffrey Yeo, *Managing records: A Handbook of Principles and Practice*, London: Facet Publishing, 2003, p.72

하위요소를 표현한 것이다.

<도표 2> 작품 부분의 기술 영역 및 요소 구성

| 기술영역 | 기술요소 | 하위요소 |
|----------|-----------|--------|
| 1. 식별 | ①작품 참조코드 | |
| | ②제목 | 원제목 |
| | | 대체제목 |
| 기타 제목정보 | | |
| ③연작 | 연작 제목 | |
| | 연작 내 순번 | |
| 2. 맥락 | ①일자 | 제작일자 |
| | | 상영일자 |
| | ②생성자 | 대표 생성자 |
| | | 보조생성자 |
| | ③제작 | |
| | ④배급 | |
| | ⑤상영 | |
| | ⑥진흥 | |
| ⑦심의 | | |
| ⑧영화제 | 출품 | |
| | 수상 | |
| 3. 내용 | ①범위 | 시간적 범위 |
| | | 공간적 범위 |
| | ②줄거리 | |
| ③시놉시스 | | |
| 4. 구조 | ①작품형식 | |
| | ②장르 | |
| | ③버전정보 | |
| 5. 관련 정보 | ①관련 작품 | |
| | ②관련 개별 자료 | |
| 6. 주기 | ①작품 주기 | |
| | ②기술자 주기 | |
| | ③기술일자 | |

<도표 3> 개별 자료 부분의 기술 영역 및 요소 구성

| 기술영역 | 기술요소 | 하위요소 |
|---------------|-------------|------------------------------|
| 1. 식별 | ①개별 자료 참조코드 | |
| | ②해당 작품 참조코드 | |
| | ③자료유형 | 일반자료유형 특수자료유형 |
| | ④기술계층 | |
| | ⑤개별 자료명 | |
| 2. 맥락 | ①생성일자 | |
| | ②생성자 | |
| | ③기타 출처정보 | |
| 3. 물리적 특성과 구조 | ①언어와 문자 | 음성대사 자막문자 |
| | ②색채와 소리 | 색채 소리 |
| | ③물리적 기반 | 규모 규격 구성물질 |
| | ④기술적 요구사항 | |
| | ⑤위치정보 | |
| 4. 저작권 | ①등록사항 | 등록번호 등록상태 |
| | ②소유사항 | 원저작자 저작권 현 소유자 |
| 5. 이용조건 | ①공개조건 | 상영조건 열람조건 |
| | ②복제조건 | |
| | ③기타 제한사항 | |
| 6. 관리정보 | ①이력정보 | 입수이력 보존이력 정리이력 이용이력 |
| | ②평가정보 | 평가일정 평가결과 처분결과 |
| 7. 관련 정보 | ①관련 작품 | |
| | ②관련 개별 자료 | |
| 8. 주기 | ①개별 자료 주기 | |
| | ②기술자 주기 | |
| | ③기술일자 | |

5. 결론

일반적으로 기록관리 전문가(Archivist)라는 어휘는 기록의 보존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³⁰⁾ 그러나 기록관리 전문가의 임무는 이미 정해져 있는 정의에 정확히 일치하는 기록만을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며 지속적인 가치를 가진 기록을 선별하고, 해당 기록의 물리적·지적 특성을 반영하여 내용·맥락·구조를 최대한 보존관리하며, 다양한 활용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가 기록관리 전문가에게 부여하는 역할 중에는 기록 유산을 형성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는 잠재적인 면에서 장기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기록이라도 실제적인 선별 없이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기록관리 전문가에게 사회의 어떤 문화적 대표성을 미래 세대에게 전승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³¹⁾

영화 기록은 인간의 문화 활동에서 만들어지고 그에 관련된 정보를 장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류의 기억이며 기록이다. 2007년 '오즈의 마법사'가 영화 작품으로서는 최초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그 사유는 20세기 엔터테인먼트 산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영화였으며 영화가 산업으로 정착하는데 촉발점이 된 것이 '오즈의 마법사'라는 것이었다.³²⁾ 이를 단순한 산업화의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류의 문화적 창조 결과물을 기록의 형태 중 하나로 인정할 수

30) Richard Pearce-Moses, "IDENTITY AND DIVERSITY: WHAT IS AN ARCHIVIST?", *Archival Outlook* (March/April 2006), p.1. <<http://rpm.lib.az.us/papers/AO4.pdf>> [cited: 2011.05.05]

31) Hans Booms, "Society and the Formation of a Documentary Heritage: issues in the appraisal of archival sources", *Achivaria* 24, 1987, p.78를 참조.

3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1682357>> [cited: 2011.08.02]

있는 이유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좁은 의미의 영화 '기록'만을 기록으로 이해하고 영화 아카이브에서 그것만을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사회적 효용성을 확대하는데 저해가 될 뿐이다.

다만, 영화 기록의 주된 생성목적이 공공 업무활동의 사실적인 내용을 증거한다기 보다는 민간의 문화적인 창작 내용을 재현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공분야의 시청각기록물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기에 영화 기록 특유의 물리적·지적 특성을 반영하는 기술을 위해서는 그것의 내역과 구성을 살펴보고 이를 반영하는 기술 원칙과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첫째, 영화 기록은 작품과 개별 자료라는, 관념적인 존재와 실제적인 존재의 구분, 둘째, 영화 기록의 내용, 맥락, 구조를 이해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영화 기록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영역 및 요소의 설정이다. 최종적으로 제안된 영역 및 요소는 2개 부분에서 각각 6개 및 8개 영역, 22개 및 25개 요소이다. 이 영역 및 요소(안)은 특정 영화 아카이브의 현황이나 정책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 일반형이기에 해당 영화 아카이브별로 특정한 요소나 하위 요소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일부 하위 요소를 예시하였다.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아마 영화 분야에 관련하여 한국의 기록학적 성과를 일부나마 분석, 적용하였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이 다양한 기술 규칙들의 공통 요소를 산출하고 그 적절성을 검토한 데 비해서 본 연구는 사례 기술 규칙들의 개별 요소들이 영화 기록의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부적합성을 연역적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실제 영화 아카이브의 사명과 정책, 소장물 분석을 주된 바탕으로 하지 않았기에 유형화 시도와 기술요소의 상세화, 적합성 면에서 일반적인 전개에 머물렀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향후 연구

에서는 실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영화 기록을 구성하는 개별 객체들의 특성과 그들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가 앞으로의 연구에 비판적 대상으로서라도 작은 가치가 있기를 희망하며, 영화 아카이브를 비롯한 문화예술 아카이브 분야가 한국에서 앞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후속 연구들에 자극이 되기를 바란다.

ABSTRACT

A Study on Description about Archival Materials in Film Archives

Kim, Jin Sung

Archival materials in film archives is a memories and archival documents of human which is generated from cultural activities of human being, and provided long-term relevant information. However, it is different general public audio-visual records because main purpose of representing culture to create the contents of private sector rather than evidence of the factual information of public service activities. Therefore, should determine the description principle and rule in order to reflect specific physical, intellectual characteristics.

So as to control the description, that is need in the textual standards to base the specific purposes and rules thus analyzed the international description standards as Dublin Core, ISAD(G), FIAF Cataloguing Rules For Film Archives. As a result, more effectively to describe archival materials in film archives required significant modifications in the organizations of the areas and the elements.

This study argues that first, to divide existence the concept and the reality (work/item) of archival materials in film archives. Second, to need understanding and indicating their content, context, structure. Third, to establish of the areas and the elements including a characteristic of it. The

final suggestion organizes separately to 6th and 8th areas, 22th and 25th elements in two parts. This conclusion does not prepare to refer the status and/or policy of a particular film archive, can be set accordingly to a specific elements or sub-elements by the film archives.

Key words: film archives, cultural creation records, archival materials metadata in film archives, archival description rules, Dublin Core, ISAD(G), FIAF Rules